

우리 아이
성클리닉

< 4 >

음란물 중독

요즘 아이들은 아이답지 못하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초등학교 여학생이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 구애'의 글을 올리는 정도는 흔한 풍경이 됐다. 성적으로 조숙한 아이들이 예전에 비해 부쩍 늘어난 것이다.

인터넷에 접속만 하면 원하는 음란 사이트를 언제나 열어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성과학연구소가 PC통신과 인터넷을 이용하는 중3~고3 재학생 1천5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7.1%가 음란 정

여놓은 내용들이다. 보는 사람에게 성적인 흥분만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다.

더구나 그 내용 속에는 온갖 폭력적인 요소가 가미돼 있어 언뜻 보면 멋있어 보일지 모르지만 현실과 동떨어지고, 그릇된 성적인 환상에 빠지기 쉽다. 음란물을 계속 접하다 보면 은연중에 사람의 성(性)을 쾌락의 도구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음란물에 등장하는 여배우처럼 모든 여자가 음탕할 것이라는 생각은 매우 위험한 발

청소년 77% 포르노물 경험

“안돼”보다 절제 유도해야

보와 포르노 정보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47%는 성의식에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우연히 친구집에서 인터넷을 하다가 음란물을 접하게 됐어요. 지금은 거의 매일 보지 않으면 안될 정도예요. 책상 앞에 앉아도 그 생각만 하면 집중이 잘 안됩니다. 그리고 길거리에서 보는 여자나 친구 누나, 심지어 담임 선생님을 봐도 알몸이 떠올라 참기 힘들 때가 많아요.”

한 중3 남학생의 고민이다. 예전에는 사진과 비디오가 음란물의 주류를 이루었지만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 아주 간편하고 손쉽게 이를 접할 수 있다는 것이 큰 문제다. 실제 상담을 해보면 이런 음란물에 중독돼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는 아이들이 적지 않다.

이런 음란물은 대부분 비정상적인 성행위의 묘사나 가학적·변태적인 장면을 자극적으로 꾸

상이다.

이렇게 비뚤어진 성의식은 성범죄의 주요 동기가 된다.

우리 아이들이 이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주변에서 어떻게 도와주어야 할까.

무조건 보지 말라는 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제일 중요한 것은 본인 스스로가 절제하려는 굳은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되도록 혼자 있는 시간을 줄이도록 하는 것이 좋다. 동아리 활동이나 운동을 활발하게 하는 것은 그러한 공상을 덜 하게 해줄 뿐 아니라 심신의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

또한 아이들이 따로 떨어진 공간이 아닌, 공개적인 장소에서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밤늦은 시간에 인터넷 접속을 자제하도록 부모님의 각별한 지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오동재 · 정신과 전문의

<www.n-health.com>